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심을 예고하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지냅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2019-3-23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루카 1,26-38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 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

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임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묵상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심을 예고하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지냅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탄 전애 이 세상에 이미 아홉달을 계셨지만, 오직 마리아와 성 요셉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않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분께서는 마리아의 배속에 그 모든 시간동안 계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렇게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외가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배속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위해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

다. 그 아이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21세기의 성인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마리아에게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수 백만 번도 더 발음 되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자주 우리의 입술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마리아’ 성모님의 이름도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스러운 기도안에서 함께 부릅니다. 우리가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이 기도를 통해 당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한 사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여동생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3병동에 있는 환자를 방문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사제는 죽어가는 남자 to 보았습니다, 그 환자가 오랫동안 성체성사를 받아 모시지 않았

다는 사실을 알고 사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환자가 사제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매일 밤 성모송을 세번 기도하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항상 지켜왔습니다. 신부님.”

긴 대화가 끝난 후, 그 환자는 그의 고해성사를 사제에게 청했고 커다란 신심으로 성체성사를 받아 모셨습니다. 병동을 떠난 후, 사제는 여동생을 만났고 그 동안 4병동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3병동의 7번 환자는 여전히 사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7번 환자를 방문하러 올바로 3병동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전날 성체를 받아모신 4병동의 환자가 밤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실수에 더 커다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우리의 성모님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